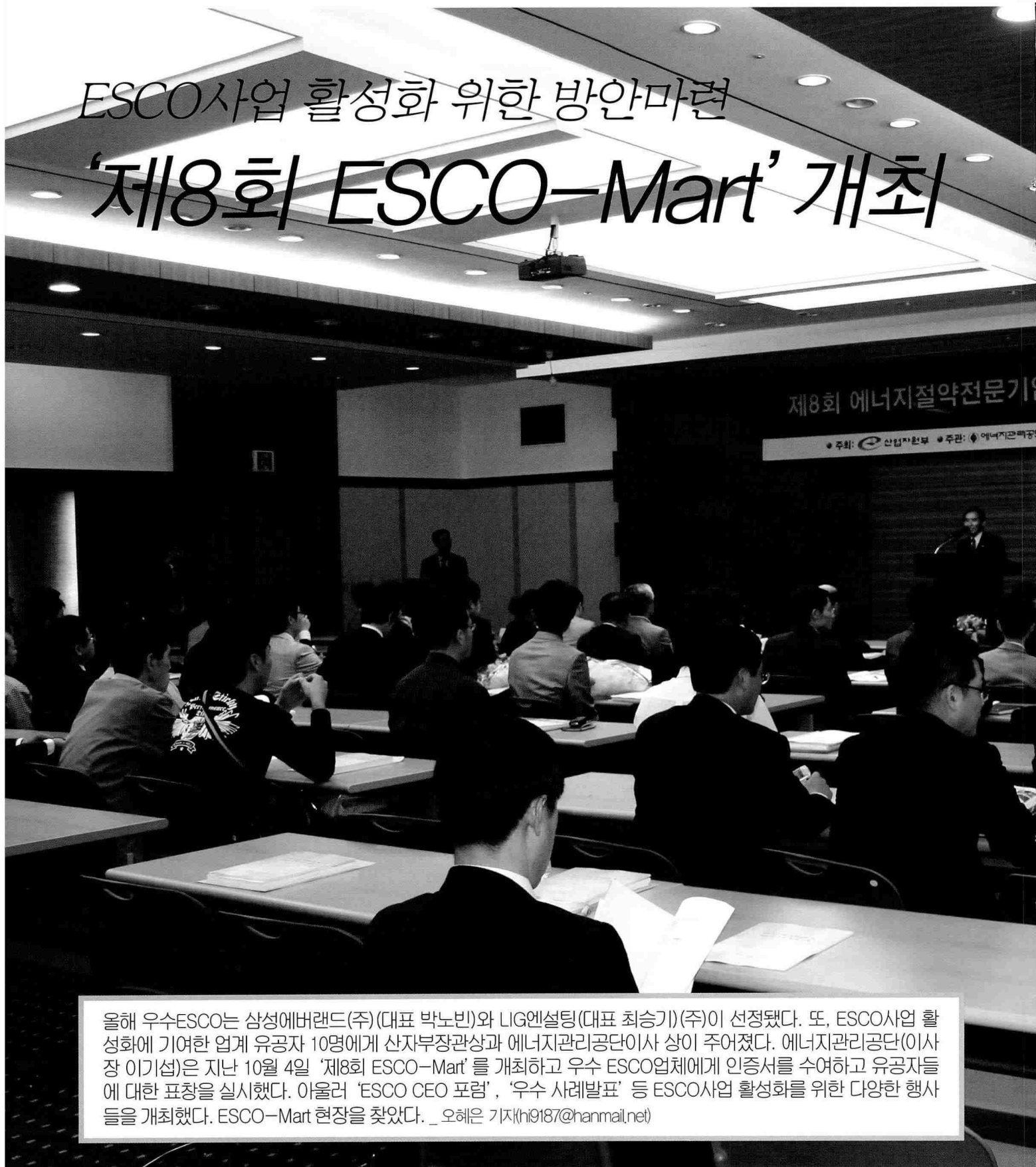


ESCO사업 활성화 위한 방안마련

'제8회 ESCO-Mart' 개최



올해 우수ESCO는 삼성에버랜드(주)(대표 박노빈)와 LIG엔설팅(대표 최승기)(주)이 선정됐다. 또, ESCO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업계 유공자 10명에게 산자부장관상과 에너지관리공단이사 상이 주어졌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은 지난 10월 4일 '제8회 ESCO-Mart' 를 개최하고 우수 ESCO업체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다. 아울러 'ESCO CEO 포럼', '우수 사례발표' 등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했다. ESCO-Mart 현장을 찾았다. _ 오혜은 기자(hi9187@hanmail.net)



▲ ESCO-Mart 본회 전경

ESCO사업의 잠재적 고객인 에너지사용자에게 구체적인 투자 사례를 소개하고 동시에 에너지사용자와 ESCO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 ESCO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8회 ESCO-Mart'가 지난 10월 4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402호에서 열렸다.

'200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기간 중 개최된 이번 ESCO-Mart는 산업자원부 에너지 관리팀 심진수 서기관, 에너지관리공단 윤무혁 사업지원본부장을 비롯해 유제인 협회장과 임직원,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은 공공기관, 민간부문, 산업체 등의 에너지사용자에게 ESCO 투자사례를 알리고 정보 등을 제공 함으로써 ESCO사업 투자 촉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지난 96년 8월에 ESCO-Mart'를 처음 개최했다. 이후 현재까지 총 7차례 개최돼 왔으며 이를 통해 4,825명의 에너지절약 업무 관계자가 ESCO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과 상담을 실시했다.

제 8회로 열린 이날 ESCO-Mart 1부 행사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변화와 ESCO사업의 탄소펀드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ESCO CEO 포럼'이 열렸으며 2부 행사에서는 '2007 우수 ESCO 인증서 수여식 및 유공자 포상'과 'ESCO사업 현황 및 정책방향', '우수 ESCO 사례발표' 등이 이어졌다.



▲ ESCO협회 유제인 회장



▲ ESCO CEO 포럼



▲ 한국투자신탁운용 이주수 팀장

에너지관리공단 윤무혁 본부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ESCO업계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이번 ESCO-Mart가 ESCO업계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도 ESCO시장을 이끌어온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서 ESCO협회 유제인 회장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는 방안은 온실가스 감축만이 방안”이라며 “발표되는 ‘우수 ESCO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에너지 절

감효과가 큰 ESCO 사업을 보급·확대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전했다. 또, “협회는 더 많은 ESCO 관련 기술과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우수 ESCO - 삼성에버랜드, LIG엔설팅

올해 우수 ESCO는 삼성에버랜드(주)(대표 박노빈)와 LIG엔설팅(주)(대표 최승기)이 선정됐다. 이것으로 이들 기업에는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 시 1점



▲ 우수 ESCO에 선정된 삼성에버랜드(우)와 LIG엔설팅(좌)

이 가점되며 정책자금 지원 시 5% 추가지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어 열린 ESCO 정책 설명 및 우수 투자사례 발표회에서는 지난 9월 5일 발표된 ESCO 혁신방안 내용을 중심으로 ESCO 사업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산자부 심진수 서기관의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우수 ESCO로 선정된 삼성에버랜드와 LIG엔설팅의 투자사례 발표와 함께 (주)에너지솔루션즈(대표 이범용)와 한국하니웰(주)(대표 박성호)의 공공 및 대학교 부문의 ESCO 우수 투자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삼성에버랜드는 최창하 팀장이 한국노스케스코그에 적용된 '배기열 회수 및 MVR시스템' 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한국노스케스코그 제지공장의 제품 건조 공정에서 약 62℃의 다량의 수증기(110,400m³/h)가 대기로 배출, 에너지낭비가 되던 것을 개선한 사업이다. 방법은 배기되는 습공기가 가지고 있는 고온다습한 특성에 따른 잠열을 극대화하고 습공기 내에 포함된 먼지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도록 물유동층 열교환기를 사용해 보충수 온도를 약 25℃ 승온하는데 이용, 기존에 사용하던 스팀에서 2.5T/H를 절감했다. 또, 기존 1.2kg/cm²G의 저압스팀을 증기 재압축장치(MVR)를 이용해 2.0kg/cm²G의 고압스팀으로 압축, 스팀의 활용가치를 증대해 에너지를 절감한 사례를 발표했다. LG화학 증류탑 MVR 시스템 적용에 대한 사례도 발표됐는데 LG화학은 이 사업을 통해 시간당 8T/H의 스팀을 절감했다.

이어 LIG엔설팅 박진섭 과장은 LG전자 PDP사업부 A3공장에 적용한 에너지절약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수축열시스템, 폐열회수, Comp' 냉각수 개선, 자연냉열시스템, 응축수 폐열회수, 일반배기폐열 활용, 인버터설치, 냉수배관통합, 공조기 환기차수 개선 등이 적용됐으며 LG전자 PDP사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연간 32억 2100만 원을 절감하게 됐다. 또, LIG엔설팅은 코스모화학 인천공장에 노후화된 벵커씨유 보일러를 Ptro-cokes 보일러로 교체, 효율향상을 통해 연간 38억 2700만 원의 연료비를 절감시켰다.

이와 함께 에너지솔루션즈의 '충남대학교 냉난방개선사업'과 한국하니웰의 '군부대 조명개체사업' 사례 등이 발표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에 앞서 올해 처음 ESCO업계 대표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ESCO CEO 포럼'에서는 30여명의 CEO들이 참여한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오 박사가 '국내의 에너지 환경 변화와 대처방안'이라는 주제로 온실가스와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주수 팀장이 'ESCO 사업의 탄소펀드 활용'이라는 주제발표 후 ESCO사업에 탄소펀드를 적용하기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한편, (주)에너지솔루션즈 송인규 이사와 영평기계설비(주)이창호 차장, (주)한솔홈데코 이범성 팀장, 서울대학교병원 백길현 부기정대우, 에너지관리공단 고유승 대리 등은 ESCO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삼성테크윈(주)김만호 차장과 한국하니웰(주)장훈 차장, LG전자(주)마정렬 차장, (주)동부하이텍 이진호 과장, 공주대학교 길길문 공업주사 등도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상을 받았다. @



▲ 산자부장관 표창 수상자들



▲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상 수상자들